

여수 의료봉사단 몽골서 '사랑 나눔'

'지구촌 사랑 나눔회' 12번째 봉사...내일 출국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6년째 묵묵히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의료봉사와 장학금 지원 등을 해오고 있는 '여수 지구촌 사랑 나눔회'가 20일 몽골로 출국한다.

18일 여수 지구촌 사랑나눔회(이하 나눔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 동안 나눔회 소속 의료진, 봉사단 등 25명과 여수 은현교회 봉사단 30여명 등 모두 60여 명이 몽골 의료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내과·소아과·치과·한방과 등 전문의들이 참여해 몽골 울란바트르 병원, 빈데르스도 립병원, 바양아드라슈 도립병원 등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의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물이 부족한 현지 여건을 감안, 지하수 관정 공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몽골이 12번째 봉사 장소인 나눔회는 지난 2007년 여수시, 여수

지역 의료진, 지역 자영업자, 봉사단체 회원 등이 주축이 돼 출범했다. 첫 봉사지로 탄자니아를 선택한 이들은 다르에르살렘 비자브웨니병원을 찾아 의료장비, 자가발전기, TV, 엠블란스를 기증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축구공과 학용품, 의료품, 구호물품 등을 전달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매년 2~3차례씩 의료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아프리카·아시아 오지 마을을 찾아 다니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도 봉

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 같은 나눔회의 노력은 외국에서 더 유명세를 치르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결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눔회 서현기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손해를 무릅쓰고도 의료봉사를 위해 헌신해 주는 의료진과 봉사대원들의 노고가 있어 지금까지 봉사활동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 나눔과 여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커피 열풍에 스러진 명성 중국 수출로 '제2 전성기'

전국 1등 지역명품

⑥ 보성녹차

도내 재배면적 74% 점유...전국 생산량 35%

비만·암 예방 특효...年 경제 효과 5012억원

보성이 녹차의 고장이 된 것은 1939년 무렵이다. 활성산 자락에서 30ha가 조성되면서 점차 재배지가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성에선 1006농가가 1064ha에서 1225t의 녹차를 생산했다.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성 녹차 점유율은 전국(3004ha) 대비 35.4%로 '녹차수도'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 도내 재배면적(1434ha)의 74.1%가 보성에 몰려있다.

보성은 녹차 가공 및 유통업체가 97개소에 달하고 전남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한국차박물관,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등 녹차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런 연유로 '보성녹차'라는 브랜드 파워는 어느 지역 특산물보다 강하다.

보성녹차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300억원, 관광객 유치까지 포함할 경우 파급효과는 501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보성군의 분석이다. 보성을 찾는 연간 237만 명의 관광객들도 녹차밭과 축제 등 녹차와 연관돼 있다.

보성녹차는 1990년대 들어 경

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비만과 암 예방 효능이 알려지면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2002년 518ha의 녹차밭에서 960t을 생산하던 보성군은 2006년 1111ha에서 1572t을 생산했다. 전성기때인 2008년에는 1161ha에서 1327t까지 생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수입되는 중국산 녹차에서 농약이 발견되면서 된서리를 맞더니 커피열풍이 불면서 급전직하했다. 요즘에는 보성군내 전체 차밭의 30% 이상이 방치돼 있을 정도로 침체일로에 있다.

비록 녹차 소비가 급감하고 있지만 보성녹차라는 브랜드 파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성군은 국내시장은 침체돼 있지만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만류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중국 호남성의 영락건강차차박물관과 발효차 500kg 수출계약 체결하는 등 지구촌 최대 시장인 중국 발효차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마트와 고급 녹차, 유기농 녹차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

도 호재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만율(16.3%·보건복지부의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과 같은 결과는 보성 녹차의 효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보성녹차의 마케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차산업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성차산업융합발전계획 수립과 홍보 마케팅으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녹차에 관광과 치유를 접목하는 '에코힐링' 콘텐츠 개발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보성=김용백기자 kyb@



삼복더위에 무력무력 '삼채'

무더위속에서도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들녘에선 유기농 '삼채'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단맛·매운맛·살얼한 맛 때문에 '삼미채(三味菜)'라고도 불리며 칼슘이 풍부하고 유향성분은 마늘의 6배나 된다. /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법률상식 마을 변호사에 물어봐"

전남 26개 읍·면 사무소 변호사 위촉

장성군을 비롯해 변호사가 없는 전남지역 26개 읍·면사무소에 마을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 변호사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게 된다.

장성군은 18일 "장성읍과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북하면 등 5곳에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고 주민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모두 장성

출신이다.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읍·면 사무소에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법률 전문가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읍·면 21곳에도 변호사 1명씩을 이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됐다.

이들은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으

며, 대부분 지역 출신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돌산읍(1명), 순천시 서면(2명), 나주시 공산면(4명), 광양시 광양읍(3명)·옥룡면(1명), 보성군 벌교읍(1명)·득량면(1명), 장성군 장성읍과 삼서·삼계·황룡·북하면 각 1명 등이다.

이들 마을변호사는 서울(19명), 광주(14명), 부산(1명), 대구(1명)에서 활동 중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박영결 강진의료원장 연임

전남도는 25일자로 현 박영결 강진의료원장을 재임명했다.



박영결 원장은 전남대병원에서 안과 과장, 진료처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원장은 2016년 7월까지 3년간 연임하게 됐다.

박 원장은 지난 3년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180병상 규모의 건물 신축, 지난해 9월 개원했으며 50억원을 들여 MRI CT, 초음파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확충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이승엽침대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침대 이승엽침대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자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